

“군민의 건강한 삶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

‘35년 공직생활 마감’ 김달천 부안보건소장, 보건행정 분야서 공 세워

“35년이 짧게만 느껴진다. 아주 긴 시간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순식간에 흐른 것 같으며 지난 세월이 눈 깜짝하는 사이에 스쳐갔다”



보건직 9급으로 시작해 5급 사무관으로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김달천 부안군 보건소장은 1983년 부안군 보건소에서 첫발 내디딘 후 완주군 보건소와 전라북도를 거쳐 지난 2015년 8월 부안군 보건소장으로 부임한 후 공직생활 35년을 오는 30일 명예로운 공직을 마감한다.

그는 군민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각종 정책을 발족하는 등 보건행정 실무에 능한 것은 물론 이거니와 군민들의 건강과 안념을 위해 발로 뛰는 참다운 보건인으로서 건강증진, 예방 의학 등 다양한 한 프로그램을 운영, 선진보건 의료사업을 펼쳐 활력 있는 부안을 만드는데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

특히 김소장은 일마다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마인드로 부서원들과 화로애락을 함께 하며, 때로는 부모처럼, 때로는 형처럼 끈끈한 정을 바탕으로 가족과 같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소통하는 리더로서

존경을 받아왔다. 부안군민의 건강을 책임자로서 부안군 보건소장으로서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결심. 2015년부터 2년 연속으로 치매관리사업과 암 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에서도 전라북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쾌거를 올리며 전라북도 최고의 보건소로 자리매김하는 업적을 만드는 등 보건행정 전문가로서 혁혁한 공을 세우며 군민의 건강과 행복 권 추구에 온 정성을 쏟아왔다.

김소장은 또 군민과 열린 마음으로 투명하게 소통하고자 사무실 출입문을 투명화 유리문으로 개설했다. 군민의 입장에서 보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만성질환자와 가족, 방문객에게 보건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마음행복문자를 전달, 더욱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김소장은 치매 없는 건강 부안을 위해 치매예방인지 증진프로그램을 읍·면별로 20개소를 운영하고, 매년 9월 중에 뇌 건강 경로당 별 (star)선발대회를 실시하는 한편, 전라북도 최초로 백산면 대수리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치매 안심마을 만들기를 운영 중으로 초 고령화 사회에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주민의 요구에

부응했다. 그는 또 전 군민의 걷기 붐 조성과 걷기 생활화 실천을 통해 군민의 건강 수명 연장과 의료비 지출을 감소 시키려고 건강 드림 범 군민 동네방네 오복 걷기 사업을 추진, 12개 마을에 9988걸기 동아리를 결성,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 걷기축제 행사를 추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보건소 전 직원이 든든한 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이 밖에도 전국 보건소 중 유일하게 농어촌형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생활습관 개선과 건강관리를 지원,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에 참여, 군민에게 스마트 폰 앱, 활동계 등을 지급, 의료장비를 통해 측정할 혈압, 혈액검사, 영양상태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수행해 질병을 사전에 차단, 자기 건강관리로 노년기 의료비 절감과 만성질환 발병률 감소에 이바지했다.

재임기간 동안 김소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국가정책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는 등 보건행정에서 헌신 노력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93년 국가사회발전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2011년에는 정부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표창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2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했고 부안군 보건소가 2017년 5월 2016년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과 함께 950만 원의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효자2동 할매집곰탕, 어르신 초청 식사 제공

맛집으로 소문난 한식전문식당 ‘할매집 곰탕’에서 12일 점심 효자2동에 거주하시는 저소득층 및 독거 어르신 30여명을 초청, 맛있는 점심을 대접했다.

‘할매집 곰탕’의 점심식사 대접은 2014년 6월부터 매월 첫째 주 월요일마다 진행돼 왔다.

때 이른 무더위로 건강을 위협받기 쉬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곰탕, 설렁탕 등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나눔의 정을 실천하고 있다.

김경자 대표는 “관내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작지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적극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완산서 효자지구대, 개정 도로교통법 주민홍보활동 실시

전주완산경찰서 효자지구대(대장 박현규)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관내 어린이집등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종류후 어린이 하차 확인의무 불이행(벌칙금 12만원, 벌점 30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등 의무불이행(벌칙금 12만원) 조항이 신설돼 주민들이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박현규 효자지구대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정착될때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파트등 방문 홍보하고 또한 협력단체인 자율방범대외도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순창서 남계파출소, 초·중·고등학교 주변 특별순찰 실시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 남계파출소에서는 학생들의 탈선예방과 안전한 여성 귀가를 위해 제일고등학교의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 및 특별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방범활동은 관내 학교 주변의 범죄취약요소를 확인 이를 적극 개선하고 야간취약시간대에는 경찰력 집중배치 및 자율방범대 등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에서 거점근무를 실시하여 가시적인 방범효과를 가져오는 등 협력방범 활동도 병행하여 학교주변 안전강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동권 남계파출소장은 “주민과 학생이 안전함을 느낄 때까지 학교 주변 범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나가 안전한 학교주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금암2동 새마을부녀회, 농번기 일손돕기 나서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주민센터 새마을부녀회 회원 및 동직원 15여명은 매일 수확기를 맞아 일손부족 현상으로 큰 시름에 잠긴 순창군 동계면을 찾아 매일 수확 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순창군 동계면은 최근 계속되는 가뭄과 갑작스러운 우박 등 기상악화로 예년과 달리 작황사태가 좋지 않아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농가주 이모씨는 “농사는 작기에 일을 해야 한해 농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어 한사람 한사람의 일손이 절실한데, 이렇게 일손을 거들어줘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에 금암2동 새마을부녀회 송명순 회장은 “어려운 농촌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탬수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더 고맙다”고 화답했다. /인재용 기자

하림 피오봉사단, 광명동굴 체험학습·봉사활동 진행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대표 이사 이문용)의 일직원과 소비자 가족으로 구성된 피오봉사단이 지난 10일 경기도 광명동굴을 찾아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올 초 선발된 4기 소비자 가족과 전북 익산에서 온 하림 본사 임직원 가족 등 총 7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봉사활동에 앞서 ‘폐광의 기억’으로 불리는 광명동굴을 견학했다. 광명동굴은 1912년에 일제가 자원수탈을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해 1972년에 폐광되기까지 대량의 황금이 채굴되었으나 폐광된 후 새우젓 창고로 쓰이던 곳을 2011년에 광명시가 매입해 동굴테마파크로 탈바꿈시킨 곳이다. 피오봉사단은 전문 해설사와 함께 일제강점기의 징용과 수탈의 현상이자 해방 후 근대화과 산업화의 흔적을 간직한 동굴 내부를 둘러보았다. 동굴 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빛의 향연인 미디어파사드쇼도 관람하고, 다양한 어류를 만나볼 수 있는 동굴아쿠아월드와 황금폭포, 동굴식물원, 와인저장소 등을 둘러보며 폐지원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고 문화적 가치를 더하면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 할 수 있음을 직접 확인했다.

광명동굴 관람 후에는 광명시 일대를 흐르는 목감천으로 이동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목감천 주변에 간나와 백일홍 등 여름 꽃 모종을 심는 환경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하천변에 버려진 쓰레기와 먼지를 제거하는 활동도 했다.

한편, 올해로 4기를 맞이한 하림 피오봉사단은 ‘내가 먹는 물, 내가 마시는 공기, 내가 사는 지구, 하림 피오봉사단이 만들어 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가족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5일 (목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8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출동)

발행·편집장 조봉성 부회장 김승근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52-3886	고창지사 563-6888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8-688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산지사 272-9417	순창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8-8855	진안지사 433-3084
호지사 010-9845-9335	팔복지사 253-6884	남원지사 652-0955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138	남원지사 652-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환

전 북 지구 청년 회의 소

전남·광주·전북(형제)지구 JC 간담회

영

-한지용 전남지구회장-

-정환균 광주지구회장-

-장승필 전북지구회장-

****형제(전남·광주·전북)지구 JC 간담회 전북 방문을 환영합니다.**

- ▶ 일시/장소: 2017년 6월 24일(토)~25일(일), 모항 해나루
- ▶ 참석대상
 - 전남, 광주, 전북지구JC 회장단 및 감사 상무위원, 롬회장
 - 한국JC 임원, 역대지구회장, 역대임원 등
- ▶ 주최: 전북지구청년회의소 (지구회장 장승필)
- ▶ 주관: 정읍청년회의소 (회장 김선홍)

세부 일정(안)

일	가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6/24	(토)	15:00~16:00		등록 및 방배경		모항 해나루			
		16:30~17:30		개회식					
		18:00~21:00		역식 및 우정의 밤					
6/25	(일)	08:00~08:30		기상					
		08:30~09:30		포식 및 유식					
		09:30~10:30		어린이 교통캠페인					
		10:30		예단식					